



## 고등학교 선배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기 고등학교의 최근 합격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어떤 성적과 서류를 갖춘 선배가 어디에 합격했는지를 최대한 많이 확인하자. 그러면 자신이 현재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높은 기대치를 갖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합격생 정보 공개 방침은 고등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합격생의 사적 정보를 적절히 가려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다방면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보통은 이러한 합격생 정보를 결국은 확인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확인 시점이다. 이미 9월 원서 접수 기간이 되어서 확인해 보니, 자기 성적으로는 기대했던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합격생 정보 확인은 빠를수록 좋다. 이미 1월이면, 작년 수험생의 수시 합격 정보는 대부분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이를 학교를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한 전략적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 '굳히기'의 자격

현역 고3을 기준으로 학생부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되므로 연초 시점에서 내신 시험은 총 10번 중 2번의 시험이 남아 있다. 학생부는 이미 80%가 확정된 상황이니 남은 20%로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미 80%의 시험을 우수하게 마무리했다면 안정성 높게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준비를 토대로 학생부교과나 학생부종합에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눈물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남은 기간 동안에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전형에 만전을 기하며 '굳히기'에 들어가면 된다.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위해 학생부 관리와 수능 공부를 적절히 안배하기만 하면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것이다.

## 합리적 전략

만약 지금까지 준비한 학생부가 선배 합격자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제 당신에게는 눈물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원하지 않는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도 없고, 수시 6번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없으니, 눈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혹 '정시 파이터'들은 오로지 수능만 공부하기 때문에 수시는 전혀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시가 자신의 주요 전략이라고 해서 수시 6번의 기회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재수생, 삼수생들이 사실상 수시 6번, 정시 3번, 총 9번의 원서 접수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노력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시 6장을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자신의 꿈의 대학을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6시간 정도를 투자하여 눈술을 공부해 보도록 하자. 하루 평균 1시간도 안 되는 공부지만, 눈술에 있어서는 충분한 투자이다. 올해도 학생부 경쟁에서 아쉽게 밀렸던 학생들의 통쾌한 역전극을 기대해 본다.